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의 여성 참여확대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예산의 젠더 분석
과제책임자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21, e-mail : hschung@kwidmail.re.kr

요 약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 여성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성 연수생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여성 연수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사업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에게 전문기술연수에 소요되는 교육운영관련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44.5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도 80억원의 예산으로 2,00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일자리사업 확대 정책으로 154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
- ☐ 만 32세 이하의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2년 이상 장기실업자와 함께 여성을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여성에게 1~3점의 가산점을 주는 우

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비록 이 사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공계 여성인력 활용정책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여학생의 진로를 이공계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그럼에도 이공계열에의 여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이공계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업에서 이공계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음.
- 그러나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성 연수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미취업 이공계 여성 졸업자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이 사업의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이공계 대학 미취업 졸업생 중 여성비율은 2007년 이후 별다른 변동 없이 31%~33%에 달하지만, 실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 여성비율은 '07년 26.0%, '08년 23.2%, '09년 18.9%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임.
- 이에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등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지원 사업에 이공계 여성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첫째, 단기적으로는 여성 연수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운영방식을 개

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제도 도입 : 미취업 이공계 졸업 여성이 연수생 선발 시 가산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여성 연수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수기관에서 연수생 모집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가산점으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수지원자 중 여성비율이 20% 이하인 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 지원자 전원을 우선하는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지원자 중 여성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기관에서는 현행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병행함.
- 여성 연수생 지원을 평가지표 개선 :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평가지표가 2008년 사업평가 시 총 5점 만점에서 2009년 사업실적 평가에서는 총 10점 만점으로 배점이 높아지고 여성에 대한 배점도 1점에서 4점으로 높아짐. 이처럼 여성 지원율에 대한 배점이 강화된 것은 여성 연수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관기관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와 더불어 여성 지원율에 따른 세부 배점을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중 여성비율을 고려하여 34%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공계 졸업 여성 교육 및 취업 지원 기관간의 교류 확대 : 전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WIST)와 4개 지역센터와 이공계 전문연수 주관기관들이 협력관계를 맺어 이공계 여성 연수생 모집과 취업에 도움을 받도록 함.

□ 둘째, 여성 연수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함.

- 주관기관 선정 평가지표에 여성 연수생 모집관련 지표 삽입 : 현재 주관기관 선정 평가지표에 ‘연수생 모집선발 및 연수, 취업기업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연수생 일반을 대상으로 한 모집에 관한 것임. 따라서 주관기관에서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별도의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 계획'을 별도의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각 주관기관이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여성연수생 모집 시 이공계관련 학과의 탄력적 적용 : 연수생 모집계획 제출 시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홍보 방법과 함께 각 주관기관에서 개설하는 연수분야와 관련된 전공학과의 범위를 연수 주관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며, 이를 연수 주관기관 선정 시 심사함. 이 때, 이공계 졸업 여성 모집을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이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이공계 졸업 여성이 일정 비율(20%)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는 제한 조항 마련함.
 - 여성 연수생 일정 비율 할당제 도입 : '여성과학기술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적극적 조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하여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 '여성 연수생 일정 비율 할당제'의 도입을 추진함. 이공계학과에 따라 여성비율의 편차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수분야별로 관련 전공학과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모집단의 여성비율을 고려하여 여성 연수생 비율을 설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여성 연수생을 모집하도록 함.
 - 여성전담 연수 주관기관 선정 : 이공계를 졸업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공계열 여자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동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여성 연수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함.
 - 여성 연수생비율 증가 주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여자대학이나 여성이 많은 학과를 방문하고, 여성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등의 여성 연수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수반됨. 여성 연수생비율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이상 증가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에 여성 연수생 모집 및 취업지원 비용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제공함.

- 셋째, 잔여 예산을 활용한 여성고용지원장려금을 조성 및 운영함. 전년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잔여 예산을 여성고용지원장려금으로 조성하여, 이공계전문기술연수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여성 연수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이공계전문기술연수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연수생의 취업률과 이공계 여성 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

3. 정책효과

- 동 사업내 여성 참여 확대는 이공계 졸업 여성의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이공계 분야로의 여성인력 진출 촉진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임.